P23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결핵의 임상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창화, 홍택원, 강경원, 강종명

서 론: 신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감염은 이환 및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유병률은 높다. 이에 저자들은 신이식 후에 발생한 결핵의 임상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6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한양대학병원에서 신이식을 받은 환자 중에서 결핵균 도말검사, 조직검사, 흉부 X-선 사진으로 결핵이 진단된 22예를 대상으로 임상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결 과: 총20명의 환자에서 22예의 결핵이 진단되었다. 총 22예 중에서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병력이 있거나 흉부 X-선 사진에서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있었던 경우는 7예로 32%이었다. 신장 이식 후에 결핵 진단까지의 기간은 65±45.9 개월이었으며, 초감염의 경우는 신이식 후 59±41.3개월, 재발의 경우에는 78±56.2개월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폐결핵이 15예, 결핵흉막염 2예, 척추결핵 2예, 장결핵 1예, 신장결핵 1예, 방광결핵 1예이었다. 결핵균 도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8예, 조직검사에서 진단된 경우는 3예, 흉부 X-선 사진으로 진단된 경우는 11예이었다. 결핵이 진단되기 전 12개월간 사용중인 면역억제제로는 cyclosporine과 azathioprine, steroid를 사용중인 경우가 15예이었고, cyclosporine과 mycophenolate mofetil, steroid를 사용중인 경우가 4예, cyclosporine과 steroid를 사용 중인 경우가 2예, azathioprine과 steroid를 사용중인 경우가 2예이었다. 신이식 후에 발생한 결핵이나 결핵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예는 없었다.

결 론: 신이식 환자에서 발생한 결핵은 약 1/3이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환자에서 재발한 경우로 결핵의 병력이 있거나, 흉부 X-선 사진에서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결핵 재발 여부에 대한 좀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